

 www.can.or.kr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3년 8월 21일(월)
	담당부서	미래소비자행동 캠페인사업부 ☎ 02-706-1372

제110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 제110차 1인시위 미래소비자행동 주관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에서는 오늘 8월21일 월요일 오후1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10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1인 시위를 개최한다. 본 1인 시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들이 돌아가며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자연재해와 원전관리 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원전사고 및 이로인한 방사능 오염수 발생 등 일련의 과정속에서 주변국에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이 없으며, 결국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진행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과 주변국에 미친 어업과 국민 불안감 등의 손해에 대해 지금까지도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은 국제사회에 씻을 수 없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우려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본과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정부의 우방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반성,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바이다.

제110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반대 1인시위

8월21일(월) 오후1시 일본대사관 앞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주관)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